

서구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 첫 졸업생 배출

광주 서구 평생학습 브랜드 '세큰대' 제1회 졸업식서 학사학위증서 수여 지난해 8월 모집, 3071명 참여 호응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세큰대)'에서 첫 졸업생 19명을 배출했다.

광주 서구는 지난 1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제1회 세큰대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입학 시작한 세큰대는 서구 전역을 하나의 커다란 대학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마련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 181개의 강좌를 운영, 3071명이 참여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출범 1년을 맞이한 세큰대는 올해 전공

수업 40시간과 교양수업 60시간을 이수한 19명의 주민에게 명예시민학사 학위증을 수여했다.

졸업식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통해 쌓아온 배움의 성과를 기념하며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큰대 총장인 김이강 서구청장은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졸업은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다"며 "세큰대에서 얻은 지식과 배움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며 나아가 이웃과 배움을 나누는 착한 서구민이 되 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졸업생 중 한 명은 "허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바른몸 만들기 강좌를 듣고

건강을 되찾았다"며 "정리수납전문가 양성 과정을 듣는 등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전공과정을 들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큰대의 학습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정규강좌인 시니어모델 수강생의 패션쇼를 시작으로 드림스쿨, 통기타 교실, 오카리나 앙상블, 성악 클래스 등 수강생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또한 세큰대 정규강좌, 방학특강, 런투유 학습모임 등을 통해 배운 캘리그래피, 원예, 서예, 수채화 등 총 18팀이 준비한 70여점의 작품이 전시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동 캠퍼스별 테마로 꾸며진 네일아트, 차 시음 등 체험부스는 수료생

들이 직접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지역사회 단체와 개인들의 재능 기부도 돋보였다.

로브드마리에, 미용사협회, 광주보건대학교 뷰티케어학과에서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을 지원해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루미에르스튜디오의 사진 촬영 기부도 졸업식에 의미를 더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발전과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는 이러한 평생학습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실현해 나가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북구, 모범 소상공인 표창 등

광주 북구가 18일 용봉초초속지공원에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살아야 광주 북구가 웃는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날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비롯해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이 오후 6시까지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오선신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과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다.

또 축하공연으로는 라인댄스, 시니어 모델 워킹 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노래자랑도 운영됐다.

네일아트·가족공예·캘리그래피 등 체험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사업 홍보 부스, 소상공인 사랑의 봉사활동, 온누리상품권 충전 이벤트 등 부대행사도 병행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모두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시행해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7979 봉사단' 이원화 체계 운영 남구, 거주지 중심 활동 강화

광주 남구는 관내 7979 봉사단이 각종 민원 처리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등 거주지 중심 활동을 강화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고 17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 17개 동에서 7979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는 주민은 1086명에 달하며 이들 중 5%가량은 수리 등에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활약하고 있다.

봉사단을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다. 특히 마을별 봉사단은 거주지 중심의 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7979 봉사단은 통합 복지 서비스 '행복한 복지 7979센터'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에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봉사단이 현장으로 출동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돼 전기류 등 수리와 이·미용 등 전문 분야 종사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남구는 일반 주민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별 봉사단을 도입했고, 현재 각 동에서는 7979 봉사단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 주변 청소와 취약계층 집안 정리 및 마당 제조 작업, 계단 안전바 설치, 노후 멀티탭 교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준명 기자**



여성친화도시 성과공유회 개최 서구, 중창단 공연 등 선봬

광주 서구는 지난 15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4년 여성친화도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여성가족진흥마을 사업에 참여한 8개 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서구는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서구"라는 비전을 내걸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민관협의체 운영 분야에서 주민과 협력해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서구는 1인 여성가구를 위한 CCTV서비스 제공, 여성안심보안관 및 안심택배보관함 운영, 안전골목 유지보수 등 안전 사업을 강화하고 3곳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해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했다.

특히 아빠가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 내 성평등 실현에도 앞장섰다. 이번 행사에서도 '파파보이스 중창단'의 공연을 선보여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서구의 대표적인 성평등 육아 사례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화장실 안전시설, 안전골목 현장 모니터링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 사례를 발표하며 성과공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 착한 서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 광산구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대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킵보드 불법주차 강력히 대응합니다"

유예시간 지나면 강제 견인 조치 대여업체에 견인료·보관료 부과

광주 광산구가 곳곳에 무단 방치된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및 비용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0월까지 광산구 지역에서 380여 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으며, 광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견인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구역은 △차도 △건널목(횡

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인근 △교차로 가장자리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가이드 기준'으로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고 접수 후 사전 통지를 하며, 30분 유예를 두고 즉시 견인한다. 보도 중앙, 자전거 도로 등 일반 견인 구역은 사전 통지 후 2시간 유예를 두고 견인한다.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업체에 1만5000원의 견인료와 일 최대 1만20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견인료는 '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요 비용과, 보관료는 '광주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광산구는 견인 시행뿐만 아니라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수완지구 등 이용다발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 방치된 전동킵보드를 신고하고 안전 이용 및 적정 주차를 홍보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조치했다.

지난 5월 대여업체 간담회를 진행해 주차 문제,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체 정비와 이용자 인식개선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김상철 기자**

동구, 청년정책 위한 창의적 협업 모델 마련

조선이공대·지역 공방 등 도움

광주 동구는 지역 청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소한 삶 기술재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와 지역 공방 및 조선이공대학교

와 협업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지난 12~13일 양일간 조선이공대 학내 자동차 실습장에서 '자동차 셀프 점검·수리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조선이공대는 이날 대학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첨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식은 물론 전기차·고전압 배터리 기술을 포함한 자동차 점검 기술을 교육했다.

최근 전기 자동차 화재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자신의 자동차를 셀프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정비를 해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